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송경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04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6일

발 의 자: 송경택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 경,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영철,
김용호,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 석,
박성연, 박춘선,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원형,
이효원, 장태용, 홍국표,
황철규 의원(31명)

1. 주문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가 “흑자 올림픽”, “친환경 올림픽”, “균형발전 사회통합 올림픽”의 상징으로 성공리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점검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국제 사회의 협조를 얻으며, 시민적 공감과 지지를 모으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한다.
-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그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1988년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유일무이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알리며 국제적 위상을 크게 강화한 계기가 되었음.
- 그로부터 30여년이 흐른 지금 서울시는 다시 한번 48년만의 올림픽 개최를 추진하며, 오세훈 시장은 “100% 흑자 올림픽”, “저탄소 친환경 올림픽”을 목표로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의사를 밝혔음.
-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에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기존 시설 재활용과 함께 친환경 기조에 맞는 도시 재개발과 인프라 개선도 중요하며, 또한 올림픽 개최가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시민들의 인식과 공감, 지지를 얻는 노력이 필요함.
-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관련 정책을 점검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으며, 시민적 공감과 지지를 모으는 범 상임위원회 차원의 활동을 펼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4. 이송처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강의 기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였다. 올림픽을 통해 우리는 식민 지배와 전쟁과 가난의 역경을 딛고 불과 한 세대만에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유일무이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알렸고,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강화했다.
- 그로부터 30여년이 흐른 지금 서울시는 다시 한번 48년만의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파리올림픽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100% 흑자 올림픽”, “저탄소 친환경 올림픽”을 목표를 제시하며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 또한 이에 발맞춰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학술용역을 발주했고, 내년 하반기에는 지난 올림픽이 남긴 긍정적 영향과 도전과제를 공유하는 ‘서울올림픽 레거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경험에 더해 대륙별 순환 개최 원칙에 따라 아시아 지역이 유력 후보로 고려되는 만큼 서울 개최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난 2032년 남북한 공동 올림픽 유치 실패와 함께 인도(아마다바드-뉴델리), 인도네시아(누산타라), 독일(베를린), 폴란드(바르샤바) 등과의 치열한 경쟁, 올림픽 같은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가져올지도 모를 경제적 후유증에 우려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 그러나 성공을 위한 기회에는 늘 실패의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며, 서울올림픽 유치 또한 서울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노력하는 만큼 그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이미 서울시는 가장 크게 우려되는 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부담 문제에 대해 기존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국고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진행 중인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민간투자를 통해 올림픽에 필요한 주요 시설을 확보하는 이점을 갖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 물론 이런 준비 외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파리 올림픽과 같이 도시의 주요 랜드마크를 활용한 창의적 경기장 구성도 고려해야 하고, 세계적 대회 개최에 맞춰 도시 재개발과 인프라도 개선해야 하며, 이런 사업을 저탄소 친환경 의제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림픽 개최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 속에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의 계기로 작용해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에 우리 서울시의회는 2036년 서울올림픽이 “흑자 올림픽”, “친환경 올림픽”, “균형발전과 사회통합 올림픽”의 상징으로 성공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발굴하며,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고, 시민적 공감과 지지를 모으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2024. 11.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